

<2018년 3월 4일 주일 말씀>

주(主)는 고난 후에 영광

본 문 누가복음 24장 25-27절

『주께서 나를 돌아 보시는 날에 인간에 내 부끄러움을
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

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
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

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
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』

◎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“때에 맞는 말씀이니라.” 하셨습니다.

그리고 <지금의 때에 가장 합당한 말씀>을 주셨습니다.
<주와 함께 부활의 때를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>입니다.

◎ 성령께서 <성경>으로 주신 말씀을 <잠언>으로 전해 주겠습니다.

1.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미련하여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경을 더
디 믿는 자들아. 그리스도가 <고난>을 받고 <자기 영광>에 들어
가야 되지 않겠느냐. 하나님의 역사는 <고난 후에 영광의 역사>
니라. 그러므로 <고난의 때>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나니, <현재
의 고난>은 <장차 받을 영광>에 비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.” 하

섰다.

2. <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악인 가인의 역사>는 <고난> 후에 ‘고난의 역사’가 오지만, <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인 아벨의 역사>는 <고난> 후에 ‘영광의 역사’가 찾아온다.
3. 성경에 “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.” (이사야 55장 8-9절) 하지 않았느냐. <육적인 생각>으로는 ‘하나님의 생각’을 갖지 못한다.
4. <육적인 생각>은 ‘고난’만 생각한다면, <영적인 하나님의 생각>은 ‘고난 후에 부활의 역사’이며, 이 역사는 곧 ‘영광의 역사’다.
5. <영광의 역사>는 ‘영적인 역사’다. <영적인 역사>는 <주>가 ‘머리’가 되어 그 육신이 실행하는 역사다.
6. <그리스도>는 ‘영’이요, <따르는 자들>은 ‘육’이다. 그런데 <그리스도>가 ‘육’을 따라 행한다면, 그것은 ‘육적인 역사’가 된다.
7. <육>이 ‘머리이며 영인 그리스도’를 따라 행해야 그것이 ‘영적인 역사’, ‘영광의 역사’가 된다.
8. <구약역사>는 ‘육적인 역사’이고, <신약역사>는 예수님을 중심한 ‘영적인 역사’다.
9. 이제 시대를 따라 <신약역사>는 ‘육적인 역사’가 되었고, <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약역사>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‘영적인 역사’다. 고로 <성약역사>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그 육신이

행한다.그러므로 <그>가 행하는 대로 행해야 ‘영적인 역사’가 되고 ‘영광의 역사’가 된다.

10. <영광>에는 ‘영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대’가 있고, ‘육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대’가 있다.
11. <성자>는 전 3년 반,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<보낸 그 육>과 같이 ‘시대 고난’을 받으면서 따르는 자들을 ‘신부 단장’시켜 ‘사랑의 대상’으로 만들고, <휴거 때> ‘시대 예비된 자들의 영들’을 휴거시켜 ‘그리스도의 영’과 ‘휴거된 영들’과 함께 ‘황금성 천국’으로 올라가 <영광>에 들어가셨다. 이때 <성자>는 ‘영광의 세계’에 들어가셨고, <그리스도의 영>과 <휴거된 영들>도 ‘영광의 세계’에 들어가 <영의 영광의 시대>를 맞게 됐다.그러나 아직 <보낸 자의 육신>이 ‘십자가 고난 중’에 있었으니 <육들>은 ‘영광의 세계’에 들어가지 못했고, 이에 <하나님과 성령님>도 ‘영광’에 들어가지 못하셨다.
12. <하나님과 성령님>은 ‘보낸 자의 육신의 십자가 고난 후’에 보낸 자와 더불어 <영광>에 들어가게 된다.이제 <보낸 자의 육신>이 시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다 받았으니, <하나님>과 <성령님>과 <시대를 따르는 자들>이 비로소 ‘영광’에 들어가게 됐다.
13. <휴거 때>는 ‘성자’와 ‘보낸 자의 영’과 ‘신부들의 영’이 <영의 영광의 세계, 황금성 천국>으로 들어갔다. - 이것이 ‘영의 영광’이다.
14. 이제 <주의 육>이 시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고, <그 육의 영광의 세계, 땅의 황금성 천국, 하나님의 자연성전, 시대에텐동산>으로 들어갔다. - 이것이 <육>도 ‘영광의 세계에 들

어간 것’ 으로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“그리스도가 <고난>을 받고 <자기의 영광>에 들어가야 하리라.” 하는 말이다.성령이 말씀하시기를 “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더디 알고 믿느니라.” 하셨다.

15. <주의 육신>은 ‘땅의 하나님의 보좌’ 에 앉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시중을 들고 있다. <주의 영>은 휴거 때부터 이미 성자와 함께 ‘하늘 보좌’ 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영광을 받고 있다.그러나 <육적인 자들>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, <자기들이 원하는 처소>로 오기를 원한다. 이리하면, 어찌 <주의 육>이 ‘땅의 하나님의 보좌’ 에 올라 <고난 후에 영광>을 누리겠느냐.<육적인 자들의 생각>으로는 ‘하나님의 영광’ 과 ‘주의 영광’ 을 이루지 못한다.

16. <부활의 역사>는 ‘영의 역사’ 이며 ‘영광의 역사’ 다.

17. <그리스도>는 ‘머리’ 이며 ‘영’ 이고, <따르는 자들>은 ‘육’ 이다. 고로 <영의 역사>란, <그리스도의 그 육신>이 사망에서 나와 ‘머리’ 가 되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역사다.이를 모두 깨닫고 행해야 <그 육신>이 더욱 자유를 얻게 된다.

18. <사망>이 ‘육신’ 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. <사망>은 ‘그리스도가 한 번에 세운 죄의 구속의 조건’ 으로 사라졌다. <사망>은 ‘시대의 죄’ 와 ‘자기의 죄’ 로 왔다. 그 죄가 ‘그리스도의 조건’ 으로 속죄되었으니, <사망>은 ‘육신을 쏘 조건’ 이 없어져 사라졌다.이로써 <사망과 사탄>이 죄로 왕 노릇하던 것이 사라지고, <그리스도>가 너희 앞에 왕 노릇하게 되었다. 이로써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. 곧 ‘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.’ 하는 말씀을 이루었다. (요한계시록 20장

1-6절)

19. 그리스도가 ‘사망과 사탄’을 이기고 나와 옛 뱀, 사탄을 1000년 동안 ‘옥’에 가두었다. 사탄의 영과 하나 되어 하늘 신부들을 괴롭히고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<인(人)사탄들>도 ‘사망권 옥’에 가두었으니, 땅의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지키게 하였다.
20. <주의 육과 혼과 영>이 ‘너희가 거하는 주의 전’을 중심하여 행하고, ‘너희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생활’을 중심하여 행하노니 매일 성령과 주를 부르며 충성과 사랑으로 행하여라. <주의 육과 혼과 영이 있는 곳>에는 ‘자유’가 있으니, 곧 <주를 모시고 행하는 그곳>이 ‘땅의 황금성 천국’이다. 기쁨과 사랑으로 행할지니, 많은 생명들을 인도하여 ‘부활의 육’으로 돌아오게 하여라.